

전남 고병원성 AI 벌써 19건...1월까지 지속 확산 우려

한파·소독 여건 악화·철새 유입 ↑·바이러스 활동 ↑ '겹악재' 도, 비상대응 강화...나주·영암에 무안·함평도 '고위험지역' 농장 중심 차단방역 실천력 확보·오리 밀집도 해소 총력

전남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채 한 달도 안돼 19건이나 집중 발생하며 대확산 중인 가운데 1월까지 지속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월부터 1월까지의 한파와 소독 여건 악화, 철새 유입 증가 등 악재가 겹치고 바이러스 활동도 활발해지는 위험 시기여서 확산세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기존 나주·영암에 이어 무안·함평까지 고병원성 AI 고위험지역으로 설정하는 한편, 농장 중심 차단방역 실천력 확보, 오리 밀집도 해소에 주력하는 등 비상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나섰지만 바이러스 오염도가 높은 데다, 전과 속도마저 빨라지고 있어 당분간 확산세를 잡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겨울철새가 매일 전남 전역을 오염시키고 특히 순천만에서 이어지는 영산강과 서해안 주변이 집중 오염돼 철새 이동 경로와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이 일치하고 있다.

예년과 달리 올해는 바이러스의 병원성이 강하고 오염도도 6.3배 높음에도 농장의 방역 수준이 확산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철새 유입이 가장 많은 12월부터 1월까지의 언제

어느 곳에서도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다.

실제 12월 들어 도내 7개 시·군에서 매일 1~2건씩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유례는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7일 장흥에서 첫 확진된 이후 지금까지 총 19건(나주 6건, 영암·무안 각 4건, 함평 2건, 곡성·고흥·장흥 각 1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자체 예산 30억원을 긴급 투입해 가금농장의 방역수칙 실천력 확보와 오리 밀집도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나주·영암 뿐만 아니라, 무안·함평도

고위험지역으로 선정해 방역대 내 산란계·오리 농장에 통제조소를 설치하고 소독 차량을 집중 배치해 통제와 소독을 강화한다.

오리 밀집도 해소를 통한 방역거리 확보를 위해 고위험지역에 대해 사육 제한을 추가 확대하고 계열사와 협의해 5일 이상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있다.

가금농장의 방역수칙 실천력 확보를 위해 농장의 소독 상황을 3단계로 확인하고, 발생 농가 중 기본 방역수칙 미이행이 확인되면 살처분 감액 등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또한 농장 밖 오염원 제거를 위해 소독

차량을 160대에서 180대로 증차해 소독을 강화하고, 10만마리 이상 산란계 농장에는 드론 소독을 주 1회에서 5회까지 확대토록 했다.

문금주 행정부지사는 "오염원 제거를 위해 AI 항원 검출 농장에 대한 시료 채취부터 살처분까지 24시간 내 완료하도록 조치했다"며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은 전남이 19건으로 가장 많고 충북 9건, 경기 6건, 충남·전북·경북 각 2건, 울산·강원 각 1건 등 총 42건이다. /김재정기자

전남도, 물 절약 운동 확산 총력

전남도는 12일 오전 출근길 공직자를 대상으로 양치컵 사용 등 '생활속 20% 물 절약 실천' 캠페인을 벌여 공직자부터 순선해 전도민으로 확산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캠페인은 49년만의 극심한 가뭄에 따른 제한 급수가 도내 전 지역으로 시행될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문금주 행정부지사는 양치컵과 홍보물을 나눠주면서 "양치컵만 사용해도 1회당 5ℓ의 물 절약이 가능하다"며 수도 밸브 수압 저감, 빨랫감 한꺼번에 세탁, 설거지용 사용 등 생활속 물 절약 실천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지난 11월 "가뭄이 매우 심각해 극복이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가뭄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김영록 지사의 지시에 따라 해수 담수화 선박 투입과 병물 지원, 물 절약 홍보는 물론 정부에 섬 광역상수도 구축 지원을 건의하는 등 항구적 가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김재정기자



극심한 가뭄으로 제한 급수 시행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12일 오전 문금주 전남 행정부지사가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양치컵 사용 등 '생활속 20% 물 절약 실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시, 도로 제설 준비 '만전'

광주시는 오는 14일 첫 눈이 예상됨에 따라 강설·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제설대책에 따라 선제 대응에 나선다.

광주시는 제설작업이 필요한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505개 노선 641km에 대해 도로관리청별 제설대책팀을 구성·운영해 기상특보와 적설량에 따라 단계별 상황관리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강설 시 즉시 현장에 투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염화칼슘 753t, 소금 5천903t, 친환경 제설제 1천216t 등 예산보다 70% 이상을 추가 확보했다. 또 살포기 등 제설장비 18종 184대의 가동 점검을 마치고 제설작업에 필요한 인력 400명을 편성했다. /박선강기자

종합플랫폼 구축...장년 지원정책 추진

광주시, '50+ 장년정책 성과 발표회' 개최

광주시가 12일 '50+ 장년정책 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동구 미디어센터 아트홀에서 열린 이번 성과 발표회에는 'You&I 마음 힐링'이라는 주제로 장년정책 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우수사업 성과 공유, 정책 참여자들의 소감 발표, 동아리 회원들의 프리마켓 운영·전시 등 장년세대와 정책 담당자들이 빛나는 한해를 서로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페스티벌 형태로 진행됐다.

발표회에는 시의원, 장년층 지원 유관기관, 장년세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퇴직 등으로 생애 전환기를 맞은 장년층의 활기차고 보람된 인생 2막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마련과 정책 연구 등 지원계획 수립, 경력·전문성을 활용한 지역형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발굴·지원하고 있다.

장년정책 플랫폼이자 허브인 '빛고을50+센터'는 노후준비 컨설팅, 일·여가·교육 등 1만2천여건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년 정책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올해는 온라인 서비스인 '50+포털'을 개통해 온·오프라인 종합플랫폼 구축을 완성

했다.

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25개 유관기관과 MOU 체결, 포럼 개최 등으로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는 물론, '광주다움 복지 50+종합케어'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선제적으로 추진했다.

성과 발표회에서는 장년정책에 직접 참여해 자아실현과 나눔활동을 펼치고 있는 빛고를 50+센터 인생학교 학장과 서포터즈 1기 단장, 사회공헌 경력형 일자리사업 참여자가 현장에서 느꼈던 보람과 애로사항 등을 발표하고 참여자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도 펼쳐졌다. /박선강기자

청년 일경험드림 플러스사업 수탁기관 공모

시, 통합지원기관·5개 유형별 수행기관 등 총 6곳

광주시가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사업'을 운영할 수탁 기관을 공모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는 지역 내 미취업 청년들이 본인 직무 적성에 맞는 사업장을 선택해 5개월간 주 25시간의 일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6년 동안 12기 사업을 진행해 5천명 이상의 지역 청년에게 지역사회에서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했다.

수탁기관 공모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비 91억원을 투입하며 13기 참여사업장과 참여 청년 총 92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수탁기관 공모에서는 해당 사업의 통합지원 기관과 5개 유형별 수행기관(공공기관형·기업형·사회복지형·사회적가치형·청년창업기업형) 각 1곳씩 총 6곳을 모집하며 사업 관리와 운영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까지 1년이다. /박선강기자

통합지원 기관은 ▲유형별 수행기관 통합 지원 ▲사업 모니터링·정책 연구 ▲공통교육·사업 홍보 등을 수행하며, 유형별 수행기관은 ▲사업 참여사업장 모집·선발 ▲사업 참여청년 모집·선발 ▲참여자 급여 지급 ▲유형별 직무 교육 진행 등을 수행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주민 사무소(또는 분사무소)가 광주지역 내 위치하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기업의 취업 지원 등 분야에서 사업 위탁 운영 실적이 있으며,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다.

참가 신청서는 오는 23일과 26일 이틀간 시 청년정책관실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수탁기관 선정은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결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광주청년정책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선강기자

▶1면 '코로나19'서 계속

구체적으로 기타 외국식전문점(383명→503명, 31.3%), 패스트푸드점(1천83명→1천387명, 28.0%), 일식전문점(269명→337명, 25.2%), 한식전문점(9천780명→1만753명, 9.9%), 중식전문점(490명→529명, 7.9%) 사업자 수가 모두 늘었다. 커피음료점(1천548명→2천555명)은 무려 65.0%의 신장률을 보였다.

이 같은 상황은 전남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전남지역 전체 사업자 수가 17% 가량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호프전문점(2천348→1천924명, -18.0%), 간이주점(254명→231명, -9.0%), 노래방(743명→687명, -7.5%), PC방(371명→358

명, -3.5%) 등 감소세를 나타냈다.

반면, 커피음료점(2천116명→3천624명, 71.2%), 실내스키인공폭설점(158명→248명, 56.9%), 피부관리업(1천356명→2천43명, 50.6%), 헬스클럽(169명→250명, 47.9%), 실내장식점(1천167명→1천718명, 47.2%), 스포츠시설운영업(171명→199명, 16.3%), 패스트푸드점(1천507명→1천805명, 19.7%), 일식전문점(426명→488명, 14.5%), 한식전문점(1만7천570명→1만8천962명, 7.9%) 등으로 사업자가 크게 늘었다.

특히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음에도 업종별 사업자 수가 변화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 과거와 다른 소비 행태가 자리를 잡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구인모집공고

1천만원 소개 성과수수료

- 분양아파트 소개 업무
- 모델하우스에 고객 동반 방문
- 전문상담사 별도 성과수수료 1천3백만원
- 광주 최고급 아파트 분양홍보

입사문의 010-3205-6688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임금내역, 각종 채권상당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입·경력사원
영업팀 / 채권추심팀
▶지사오피스 상담◀

정차적 편의 법철자 준수 시간적 효율

호남지사 062-417-4731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

광주역앞 양한방용 병원건물 급매

- 광주역앞 이면도로 코너
- 상업지 대지534㎡ 6층연건평1,345㎡
- 병실25개, 70베드, 승강기1대 주차16대
- 스프링클러, 소방시설 2022.8월 법정시설 완비
- 양한방 의료장비 완비
- *** 인수와 동시에 빈몰 영업가능

[급매] 27억5,000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갖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